

# 聞慶地方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연구\*\*

김문기/안태현\*

## — Ⅱ 차 례 Ⅱ —

1. 서 론
  2. 구곡시가의 시원과 조선조의 수용 양상
  3. 문경지방 구곡원림의 특징과 구곡시가의 작품세계
  4. 문경지방 구곡시가의 경물 인식과 형상화
  5. 결 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문경지방에는 선유구곡, 쌍룡구곡, 화지구곡, 석문구곡 등 유명 구곡원림이 4개나 존재하는데 선유구곡 원림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각 곡의 지점 고증도 비교적 용이했으나 쌍룡구곡 원림과 석문구곡 원림은 지점을 고증하는 데 어려움이 다소 많았고 화지구곡 원림은 저수지 축조로 인하여 훼손이 심각하였다.

선유구곡 원림은 둔덕산 계곡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데 다행히 제2곡부터 제9곡까지 각 지점의 구곡명이 석각되어 선명히 남아 있으나 제1곡만은 홍수로 유실되어 지점이 불분명했으므로 금번 학술조사를 통하여 고증하였다. 정태진이 지은 선유구곡시가 외선유구경시와 함께 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입도차제를 노래했다기보다 각 곡의 경물을 통하여 성리학적 이념을 표출한 감흥존양의 시라 볼 수 있다.

쌍룡구곡 원림은 도장산 기슭 약 4Km에 걸쳐져 제1곡 입문으로부터 제9곡 홍유동까지 기암절벽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어 절승을 이루고 있다. 쌍룡구곡시는 선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문경시 새재박물관 학예연구사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2-A00045)”

유구곡시보다는 흥취를 많이 표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경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통하여 도학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화지구곡 원림은 제1곡 마포(말개)로부터 하늘재라고 부르는 제9곡 대원까지 약 16Km에 걸쳐 전개되는데 제6곡 산문개는 저수지 공사로 훼손되었고 제4곡 고루성과 제8곡 관음원이 금번 조사에서 새로 고증되었다. 권섭이 지은 화지구곡시는 경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통하여 흥취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기호학과 구곡시가의 시적 경향을 정통으로 계승한 것이다.

석문구곡 원림은 제1곡 농청대로부터 제9곡 석문정까지 약 9Km에 걸쳐 전개되는데 채헌이 직접 경영하던 원림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전하고 있으나 제6곡 '반정'의 지점을 고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석문정구곡가는 가사체로 되어 있고 석문정구곡시는 무이구곡가의 차운시인데 속세를 떠나 가어옹의 삶을 살면서 도심을 닦고자하는 지취를 표출하고 있다.

문경지방의 구곡시가 중에서 선유구곡시와 쌍룡구곡시, 석문구곡가의 경물 인식은 이념적 인식 방법을, 화지구곡시의 경물 인식은 객관적 인식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문경지방 구곡시가의 시적 형상화는 주로 이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념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선유구곡시, 쌍룡구곡시, 석문구곡가의 경우는 맑고 밝고 고요하고 삼상한 이미지로 청정한 도심을 형상화 하고 있었으며 경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화지구곡시의 경우는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한가로운 이미지의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적인 묘사의 방법을 통하여 구곡 경물에 대한 자아의 흥취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문경지방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는 그 경관의 빼어남과 시가의 문학적 의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4개소의 구곡원림을 관광 명소화 하여 문경의 자연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면 지방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구곡시, 구곡가, 무이도가, 구곡원림, 선유구곡, 쌍룡구곡, 화지구곡, 석문구곡, 경물인식, 객관적 인식, 경험적 인식, 이념적 인식

## 1. 서론

우리나라에 儒敎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新儒學, 즉 性理學이 전래된 것은 13세기 말엽이라 할 수 있다. 고려 忠烈王 15년 (1289)에 安珦이 元나라에 들어가 朱子書를 얻어 手寫하고 孔子와 朱子의 眞像을 摹寫하여 귀국한 후, 朱子書를 講함으로써 성리학이 비로소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 후, 白頤正은 忠宣王을 따라 燕京에서 10년간 머물면서 程朱性理學을 배워 전하였으며 禹倬은 程朱易傳을 獨解, 이를 敎授하여 易東先生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麗末에는 鄭夢周가 性理學의 流布에 크게 기여하여 東方理學之祖로 추앙받았으며 權近과 鄭道傳으로 이어지면서 性理學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조선조에 접어들어 吉再, 金叔慈, 金宗直, 金宏弼, 趙光祖 등의 學脈을 통하여 성리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유학은 실제적 방면, 通經明史, 修齊治平의 문제해결과 실천에 기울었고 趙光祖에 와서는 至治主義 儒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性理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이론의 탐구는 조선조 중엽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己卯士禍를 계기로 하여 性理學者들은 山水間에 묻혀 학문을 닦고 이론을 궁구하게 되었으니 晦齋 李彦迪과 花潭 徐敬德을 거쳐 退溪와 栗谷에 이르러 性理學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sup>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학자들, 특히 성리학자들은 朱子學을 신봉하여 사상이나 철학 및 生活은 물론이고 문학에 이르기까지 전범을 삼았었다. 이들은 주자의 문학을 본받으려 하였고 생활양식도 실천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주자의 <武夷權歌> 즉 武夷九曲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자의 詩중에서 이 武夷權歌가 文以載道的 文學觀에

1) 韓祐勳,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0, 206-207면.

의하여 朱子學的 妙理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山紫水明한 勝地에 精舍를 건립하거나 武夷九曲과 같은 九曲園林을 경영하면서 隱居求道하여 朱子然한 생활을 함으로써 유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했었다.<sup>2)</sup>

이렇게 조선조 유학자들에 의하여 경영된 구곡원림은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한 市, 郡에 많으면 한두 개의 구곡원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聞慶地方에는 4개소나 되는, 많은 유명 九曲園林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문경읍 당포리의 花枝九曲, 산양면과 산북면의 石門亭九曲, 농암면의 雙龍九曲, 가은읍의 仙遊九曲 등이 문경시라는 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문경의 山水와 自然景觀이 수려하다는 점과 문경에는 이런 수려한 산수를 바탕으로 구곡원림을 지정하여 경영할 만한 유학자들이 있었다는 증좌일 수 있다. 문경의 산수가 수려함은 문경의 鎮山인 主屹山(1106m)을 비롯한 黛眉山(1115m), 烏嶺山(1026m), 大耶山(930m), 靑華山(984) 등<sup>3)</sup> 높은 名山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쌍룡구곡과 선유구곡 인접한 곳에 尤菴 宋時烈의 華陽九曲이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문경이 경상도의 북부지방으로서 조선조 유학의 센터라 할 수 있는 안동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구곡원림을 경영하고 감상할 만한 학자들이 많이 우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경의 5개 구곡원림에는 이들 원림을 경영한 유학자들의 九曲漢詩와 九曲歌辭가 전하고 있다. 즉, 權燮의 花枝九曲詩(일명 身北九曲詩), 蔡憲의 石門九曲歌, 작자 미상의 雙龍九曲詩, 丁泰鎭의 仙遊九曲詩가 전하고 있는데 특히 채헌의 석문구곡가는 歌辭體로 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 金文基, 「朱子 〈武夷九曲歌〉의 受容과 九曲詩의 전개」, 한국유교학회주최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1991.4.25).

3) 문경시, 『문경의 명산』, 1996 참조.

그러나, 문경의 5개소 구곡원림은 근대 이후, 이에 대해 관심이 소홀하여 그 경계와 각 구곡의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는 곳이 허다하게 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변형된 곳도 있어서 그 정확한 지점을 고증하는 등 시급히 복원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문화유산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경지방 구곡원림과 구곡시가의 실태조사와 복원, 이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古典詩歌와 漢文學의 측면에서도 집중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문경지방의 文化觀光 名所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 연구와 고증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구곡시가의 시원과 조선조의 수용 양상을 살펴 본 후, 문경지방 구곡원림과 구곡시가의 특징을 고구하고 구곡시가의 景物 認識과 形象化 방법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2. 九曲詩歌의 始源과 朝鮮조의 受容 樣相

### 1) 구곡시가의 시원

園林은 庭園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林泉, 家園, 林園 등으로도 불린다.<sup>4)</sup> 한국의 전통원림은 승유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宮中園林, 官衙園林, 卜居園林으로 대별된다. 이 중 卜居園林은 私第를 중심으로 한 居第園林과, 별도로 경영되는 別業園林으로 구별되는데 양자 모두 원림조성의 사상은 儒學思想 계보이며 그 技法 또한 儒家園林의 계통이다. 특히 유가

4) 尹國炳, 「高麗時代의 庭苑用語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 한국정원학회지 제 1권 제1호, 1982.

鄭瞳旣, 「庭園에 대한 고찰」, 『한국의 정원』, 민음사, 1986.

의 전통원림은 居第園林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別業原林에 취중하였다. 이 별업원림은 사제에 부설되는 別堂園林과 사제와는 따로 부설하는 別墅園林, 명산에 精舍를 경영하는 九曲園林으로 구별된다.<sup>5)</sup>

구곡원림의 원천은 멀리 論語의 曾點 浴沂氣像<sup>6)</sup>과 莊子의 刻意篇<sup>7)</sup>에서 그 정신을 구해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시원은 宋나라 朱熹가 武夷精舍를 건립하고 武夷九曲을 경영한 것에 있다.

朱子(1130-1200)는 1169년에 建陽에 寒泉精舍<sup>8)</sup>를 建立하고 여기에 서 朱子家禮와 近思錄을 지었다. 1175년에는 建陽 서북쪽 雲谷에 草堂을 짓고 晦庵이라 號하였으며 유명한 「雲谷記」<sup>9)</sup>를 지었다. 1179년부터 南康軍知事로 있으면서 白鹿洞書院을 세워 講學하였고 1183년에는 武夷山 아래 武夷精舍를 세우고<sup>10)</sup> 「武夷精舍雜詠并序」를 지었던 것이다.<sup>11)</sup>

5) 李殷昌, 「韓國儒家 傳統園林의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4집,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8.

6) “曾點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 六人 童子六 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 喟然歎曰 吾與點也”(論語 先進篇)

7) “就藪澤 處閑曠 釣魚閑處 爲無而已矣 此江海之士 避世之人 閑暇者之所好也”(莊子 刻意篇)

8) 朱子는 母親 祝氏가 돌아가자 建陽 後山 天湖의 남쪽에 禮葬하고 이 골 이름을 寒泉이라 하였으며 이 墓側에 살며 초하루와 보름에 歸奠했다고 한다(“正月 葬母氏於 建陽後山天湖之陽 命其谷曰寒泉 先生居喪盡禮 既葬日居墓側 旦望則歸奠”) 『朱子大全』, 附錄 卷四 年譜原本.

9) “淳熙二年 乙未七月 作晦庵於盧鋒之雲谷 有雲谷記”(朱子大全 附錄 卷四 年譜原本). 이 雲谷記는 雲谷二十六詠에 대한 설명인데 記文 다음에 雲谷二十六詠과 雲谷雜詩 十二首가 실려 있다.

10) “淳熙 十年癸卯四月 作武夷精舍”(同上)

11) 武夷精舍雜詠十二首는 다음과 같다.

琴書四十年 幾作山中客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精舍)  
我慙人知心 偶自愛山水 蒼崖無古今 碧澗日千里(仁智堂)  
晨窓林影開 夜枕山泉響 陰去復何求 無言道心長(隱求齋)  
故人肯相尋 共寄一茅宇 山水爲留行 無勞具雞黍(止宿寮)  
朝開雲氣擁 暮掩薜蘿深 自笑晨門者 郡知孔氏心(石門塢)

武夷精舍雜詠은 精舍, 仁智堂, 隱求齋, 止宿寮, 石門塢, 觀善齋, 寒暑館, 晚對亭, 鐵笛亭, 釣磯, 茶, 漁艇 등 武夷精舍雜詠并序에서 묘사한 武夷精舍와 주위의 樓亭 및 生活 모습에 대해 읊은 시이다. 이 무이잡영을 비롯한 雲谷二十六詠과 雲谷雜詩十二首는 다음에 논의할 武夷九曲權歌와 함께 조선조 유학자들이 다투어 次韻詩를 지었던 詩들이다.

주자는 이듬해인 1184년에는 武夷九曲歌라고 흔히 불리는 「武夷權歌十首」를 짓게 되었다. 이 「武夷權歌」는 중국 복건성 송안현 남쪽의 일명 '武彝'라고 하는 산의 아홉 구비 勝區를 소재로 하여 읊은 것인데, 옛날 이 산에 神人 武夷君이 살았다 하여 武夷山이라 이름했다. 120리에 亘한 武夷山에는 36峰과 37巖이 있어 溪流가 그 사이를 돌며 絶勝 九曲을 이루었으니, 一曲은 升眞洞, 二曲 玉女峰, 三曲 仙機巖, 四曲 金鷄巖, 五曲 鐵笛亭, 六曲 仙掌峰, 七曲 石唐寺, 八曲 鼓樓巖, 九曲 新村市이다. 「무이구곡가」는 바로 이 무이구곡의 절승을 읊은 것이다.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꼭대기엔 仙靈이 있고
山下寒流曲曲清	산 아랫 굽이굽이 물이 맑구나.
欲識箇中奇絶處	그 중에 빼어난 곡 찾노라 하니
權歌閒聽兩三聲	뱃노래 한가로이 들려만 오네.

一曲溪邊上釣船	첫 구비 물가에서 낚싯배 타니
幔亭峰影蘸晴川	만정봉 그림자 맑은 내에 어리네.

---

負笈何方來 今朝此同席 日用無餘功 相看俱努力(觀善齋)  
 竹間彼何人 抱甕靡遺力 遙夜更不眠 焚香坐看壁(寒棲館)  
 倚筇南山巔 卻立有晚對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晚對亭)  
 何人轟鐵笛 噴薄兩崖開 千載留餘響 猶疑笙鶴來(鐵笛亭)  
 削成倉石稜 倒影寒潭碧 永日靜垂竿 茲心竟誰識(釣磯)  
 仙翁遺石竈 宛在水中央 飲罷方舟去 茶烟裊細香(茶竈)  
 出載長煙重 歸裝片月輕 千巖猿鶴友 愁絕棹歌聲(漁艇)

虹橋一斷無消息      虹橋는 끊어진 채 소식이 없고  
萬壑千巖鎖翠烟      골짜기 바위마다 안개만 자욱하네.

八曲風烟勢欲開      여덟 구비 연기바람 개고자 하고  
鼓樓巖下水縈洄      고루암 아래는 물결만 휘도네.  
莫言此處無佳景      이곳에 볼 것 없다 말하지 마소  
自是遊人不上來      이 때문에 노는이들 오지 않으리.

九曲將窮眼豁然      아홉 구비 다하니 앞이 확 트여  
桑麻雨露見平川      이슬비 내린桑麻들 편편한 시내.  
漁郎更覓桃源路      어부들은 桃源 갈 길 다시 찾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 말고 인간에 별천지 있다.

朱子는 또한 1192년에 建陽 西南 三桂에 考亭을 짓고 1194년에는 竹林精舍(滄州精舍)를 지어 章州知事를 역임한 후에 晩年을 이곳에서 보내 었던 것이다. 이처럼 朱子는 武夷山에 寒泉精舍, 武夷精舍, 考亭, 竹林精舍(滄州精舍) 등 많은 精舍를 짓고 九曲을 경영하면서 心性을 수양하고 道學을 닦으면서 무이구곡가를 짓자 후대의 중국 유학자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조의 유학자들이 이를 모방하여 정사를 짓고 구곡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九曲詩歌 또는 그 次韻詩를 짓게 되었던 것이다.<sup>12)</sup>

주자의 무이구곡가에 대해 중국에서의 次韻詩나 和韻詩는 조선조처럼 많이 창작되지 못했으나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데 九曲歌라는 명칭은 “九曲樵歌”, “九曲權歌”, “九曲漁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朱子의 門人인 方岳, 留元岡, 辛棄疾, 白玉蟾, 李綱, 蔡沈, 傅雍, 韓元吉, 葉西潤 등은 무이구곡도가의 和韻詩를 남겼고<sup>13)</sup> 未軒의 “遊武夷九曲僭用文公先生韻

12)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1991.

13) 『欽定四庫全書』, 「式古堂書畫彙考」, 徐良夫武夷九曲權歌圖并記卷.



賦棹歌十首”<sup>14)</sup> 등은 次韻詩이나 元 曹文晦의 “九曲樵歌十首”<sup>15)</sup>, 蔡哲의 “武夷漁歌” 등은 和韻詩였다.

## 2) 조선조의 수용 양상

조선조 유학자들의 朱子에 대한 숭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들은 스스로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 구곡시를 읊거나 武夷九曲樵歌의 次韻詩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주자가 살던 武夷九曲과 雲谷을 聖所로 여겨서 가 볼 수 없음을 恨하면서 九曲圖를 그려 완상하였고 武夷山의 역사와 전설, 풍물과 경치에 대한 서술과 이들을 소재로 하여 읊은 시들을 수록해 놓은 武夷志를 탐독하기도 하였다.<sup>16)</sup>

무이구곡가가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朱子大畵이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개성에서 출토된 吉州窯의 天目盞에 그려진 山水畵 둘레에 武夷樵歌九曲詩가 씌어져 있다는 점<sup>17)</sup>, 徐居正이 武夷精舍雜詠의 次韻詩인 “朱文公武夷精舍用文公韻”을 지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武夷樵歌는 고려 말엽에 전래된 듯하나 우리 문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조선조의 유학자들, 특히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조의 성리학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시기를 전후하여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九曲園林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九曲詩를 짓고 구곡도를 그려 완상하거나 武夷樵歌를 중심으로 한 詩批評과 詩論을 펼치기도 하였다.

14) 『欽定四庫全書』, 『未軒文集』, 遊武夷九曲僭用文公先生韻賦棹歌.

15) 『欽定四庫全書』, 『浙江通志』, 九曲樵歌十首并序錄七.

16) 李敏弘, 『士林派文學研究』, 형설출판사, 1987.

17) 久志卓眞, 「畵金青磁·畵金烏盞」, 『朝鮮陶磁』, 雄山閣, 1974, 211-216면.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 『考古美術』 151, 韓國美術史學會, 1981.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구곡의 경영과 구곡시의 창작에 대한 기록이 확실한 것으로는 朴河淡(1479-1560)의 雲門九曲과 雲門九曲歌가 최초이다. 운문구곡가는 逍遙堂 朴河淡이 58歲 時인 1536년(丙申)에 淸道の 雲門山을 비롯한 東倉川 일대의 빼어난 구곡의 경관을 읊은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退溪 李滉(1501-1570)은 陶山九曲을, 栗谷 李珣(1536-1584)는 高山九曲을 경영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九曲園林으로 유명한 것은 寒岡 鄭述(1543-1620)의 武屹九曲, 壽軒 李重慶(1599-1678)의 梧臺九曲, 尤菴 宋時烈(1607-1689)의 華陽九曲, 谷雲 金壽增(1624-1701)의 谷雲九曲, 遂菴 權尙夏(1641-1721)의 黃江九曲, 瓶窩 李衡祥(1653-1733)의 城臯九曲, 훈수 鄭萬陽(1664-1730)의 橫溪九曲, 玉所 權燮(1671-1759)의 花枝九曲, 近品齋 蔡憲(1715-1795)의 石門九曲, 耳谿 洪良浩(1724-1802)의 牛耳洞九曲, 敬菴 李漢膺(1778-1864)의 春陽九曲, 凝窩 李源祚(1792-1871)의 布川九曲, 厚山 李道復(1862-1938)의 駟山九曲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유학자들은 대개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연상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하여 경영하던 구곡을 한시로, 또는 時調나 歌辭등 국문시가 형태로 읊었다.

朝鮮朝 중엽 이후로 많은 九曲詩가 창작되었는데 이를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우선 크게 漢文九曲詩와 國文九曲詩로 나눌 수 있다. 漢文九曲詩는 創作九曲詩, 漢譯九曲詩, 變異九曲詩로 나누어지고, 創作九曲詩는 모두가 武夷權歌의 次韻詩 또는 和韻詩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직접 경영하던 구곡원림을 노래한 園林九曲詩와 次韻九曲詩, 再次韻九曲詩, 和韻九曲詩로 다시 나누어진다. 變異詩는 무이도가나 다른 구곡시의 영향을 받아 이룩된 七曲詩와 九絶詩 등이 있다. 한편, 國文九曲詩는 九曲時調와 九曲歌辭로 나눌 수 있다.

園林九曲詩는 조선조 구곡시 중에서 주류라 할 수 있다. 각 구곡원림의 주인들이 모두 그 원림의 구곡시를 지은 것은 아니다. 陶山九曲과 竹溪九曲을 경영한 退溪는 구곡시를 남기지 않았으며 正祖 때의 霞溪 李家淳은 陶山九曲詩를 지은 바 있다. 그리고 尤菴의 華陽九曲과 遂菴의 黃江九曲을 소재로 하여 玉所 權燮이 대신 華陽九曲歌와 黃江九曲歌를 지었으며 金壽增은 谷雲九曲歌의 序首와 第一曲詩만 읊고 나머지는 자식들과 외손들이 지었다. 그 밖에는 대개 자신들의 구곡원림을 소재로 하여 그 승경과 隱求之樂을 읊고 있다. 朴河淡의 雲門九曲歌, 鄭述의 武屹九曲詩, 權燮의 花枝九曲歌, 金壽增과 그의 아들 및 외손이 합작한 谷雲九曲歌, 鄭萬陽의 橫溪九曲歌, 李漢膺의 春陽九曲歌, 李源祚의 布川九曲歌 등은 자신들이 직접 경영하던 구곡원림을 소재로 하여 읊은 것이다.

이 외에도 무이도가를 次韻은 했으며 고산구곡의 세계를 읊은 高山九曲詩도 있다. 권섭은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고산구곡가의 和詩를 지었고 尤菴 宋時烈을 비롯한 栗谷 제자 10인이 高山九曲歌의 和詩인 高山九曲詩를 지었다. 한편, 宋時烈의 문인으로 富平 縣監을 지낸 李賀朝(1664-1700)도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高山九曲詩를 지은 바 있다. 이 詩는 武夷九曲歌와 高山九曲歌의 시상을 절충한 감이 있다.

이와 같이 유학자들은 주자의 생활과 학문을 본받고자 승경을 찾아 九曲園林을 만들고 주자의 武夷精舍, 寒泉精舍, 滄州精舍와 같은 각종 정사를 구곡 안에 구축하여 隱求之樂을 누리면서 朱子의 무이도가나 무이정사 잡영을 차운하여 각자의 구곡에 대한 구곡가와 각자의 정사에 대한 정사잡영을 읊었다. 그리고 九曲記를 짓고 그 九曲圖를 그려 완상하며 대개 九曲圖記를 썼던 것이다.

次韻九曲詩는 數的인 면에서 볼 때 구곡시 중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것만도 78편에 이르고 있다.<sup>18)</sup> 성리학이 그 난숙기를 맞

은 조선조 중엽 이후, 이름난 성리학자는 대개 한 번쯤 武夷權歌의 次韻詩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園林九曲詩를 지은 분들은 거의 次韻九曲詩를 남기고 있다. 再次韻九曲詩로는 朱子の 武夷權歌를 次韻하여 지은 漢文九曲詩를 보고 再次韻하여 지은 漢江 朴昇東(1847-1922)의 次孤山九曲潭詩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漢譯九曲詩로는 우암 송시열이 율곡의 고산구곡가를 한역한 것이 있다. 尤菴은 原詩의 시상을 충실히 전하고자 近體詩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六句 短詩體를 택하여 번역하였다. 尤菴의 譯詩는 五言古詩가 아니라 五言短詩이며 일종의 小樂府라 할 수 있다.

國文九曲詩의 경우, 九曲時調로는 栗谷의 高山九曲歌, 壽軒 李重慶의 梧臺九曲歌, 玉所 權燮의 黃江九曲歌, 宋타의 花菴九曲歌 등이 있고 九曲歌辭로는 近品齋 蔡憲의 石門亭九曲歌, 李寬彬의 黃南九曲歌, 柳重教의 玉溪九曲歌, 厚山 李道復의 駟山九曲歌 등이 있다.<sup>19)</sup>

### 3. 문경지방 九曲園林의 특징과 九曲詩歌의 작품세계

聞慶市에는 仙遊九曲, 雙龍九曲, 花枝九曲, 石門九曲 등 4개소의 유명한 九曲園林이 있는데 이는 한 곳 정도의 구곡원림을 가진 시, 군도 많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천혜의 名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구곡원림에는 구곡시가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빛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구곡원림에 대한 고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화지구곡과 석문구곡은 그 존재마저도 잊혀질 정도이고 구곡시가에 대한 연구는 거

18) 金善祺, 「九曲歌系 詩歌의 展開와 〈高山九曲歌〉의 位相」, 『송자학논총』 6, 2000.

19)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1991.

의 수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선 문경지방 4개소의 구곡원림에 대한 현지답사와 지표조사를 2002년 8월, 9월, 11월 등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지답사와 지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각 구곡원림의 현황과 특징, 문헌조사와 실경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분석, 연구한 구곡시가의 작품세계는 다음과 같다.

### 1) 仙遊九曲 園林과 仙遊九曲詩

仙遊九曲은 聞慶市 加恩邑 완장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屯德山(969m) 자락으로부터 흐르는 계곡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玉鳥臺 바위 위에 세워진 鶴泉亭으로부터 七友亭 위쪽까지를 仙遊洞이라 부르는데 小金剛이라고 하는 이 선유동 골짜기를 따라 나타나는 아홉 구비의 승경, 즉 玉鳥臺, 鸞笙瀨, 詠歸岩, 濯淸臺, 觀瀾潭, 洗心臺, 活淸潭, 靈槎石, 玉霞臺를 선유구곡이라 한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外仙遊九曲에 대하여 문경의 선유구곡을 內仙遊九曲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유구곡 중에서 특히 옥석대 주위에는 수백 명이 앉아 놀 수 있는 거대한 巖盤들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고 그 위로 水晶처럼 맑은 물이 수천 년 세월동안 흘러 기이한 물길을 이루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구비마다 아름답리 老松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이 전개되고 秘境들이 숨어 있어 神仙들이 내려와 놀았다고 하여 仙遊洞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인데 특히 孤雲 崔致遠, 愚伏 鄭經世, 陶庵 李緯, 損齋 南漢朝, 病翁 申弼貞 등이 즐겨 찾아 자취를 남겼다. 도암 이재는 이웃한 용추동에 屯山精舍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고 남한조는 관란담 위에 玉霞亭을 지어 복거하였다. 옥석대 위의 학천정은 도암 이재선생을 추모하여 후학들이 1906년에 세운 정자인데 전

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고 곁에는 도암선생의 影幀을 모시는 건물이 한 칸 붙어 있다. 학천정 앞 옥석대에는 “玉鳥臺”라는 篆書가 새겨져 있고 큰 바위에 “仙遊洞”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데 최치원의 친필이라 알려져 있다. 인근의 曦陽山 鳳巖寺 주변에는 “夜遊岩”, “白雲臺”, “取適臺”, “石門” 이란 고운의 친필이 석각되어 전하고 있다.<sup>20)</sup>

七友亭은 한일합방 후인 1927년에 愚字 號를 가진 문경출신 7인의 학자가 의기투합하여 세운 정자인데 懸板은 義親王 李剛이 쓴 것이라고 한다.

선유구곡은 그 명칭과 지점이 잘 일치되고 보존이 양호한 상태이며 각 지점의 曲名이 암각되어 있는 것도 특징인데 이 또한 최치원의 글씨라고 전한다. 제1곡인 옥하대는 홍수에 깎여 내려가 글씨도 없어지고 그 지점도 알 수 없었다.<sup>21)</sup> 그러나 금번 현지조사 연구를 통하여 제1곡 옥하대는 동경 127° 58' 46.63", 북위 36° 40' 09.01", 해발 145.9m 지점임이 고증되었다.<sup>22)</sup> 다만 鶴泉亭 옆 높다란 바위에 ‘山高水長’이라는 힘찬 필치의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고 다만 학천정 앞 바위에 “鶴泉”이라는 李完用의 글씨가 陰刻되어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선유구곡은 제1곡부터 제9곡까지 끝없이 평평한 암반이 펼쳐지고 맑은 물과 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으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石彫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세에 들어 이 선유구곡 아래 新仙遊九曲이 지정되었으나 지금은 석각이 되어 있는 ‘臥龍潭, 紅流川, 白石灘, 九老川’ 등 4개의 곡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23)</sup> 그러나 금번 학술조사를

20) 봉암사 입구에서 좌측으로 조금 떨어진 논 두덕에 “高山流水 明月清風”이란 大字가 석각되어 있는데 최치원의 글씨라고 전하나 고증할 수 없다.

21) 정태진의 畏齋集 권2 <內仙遊九曲> 제 1曲詩 다음에 “옛날에는 제각이 있었으나 홍수로 갈라져 떠내려가 지금은 그 곳을 찾아 낼 수 없다(久有題刻而爲洪流所泐今不得而辨其處云)”고 밝혀 놓고 있다.

22) 제 1곡 玉霞臺의 지점 고증은 시의 내용, 제 2곡과의 거리, 주위의 경물, 曲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통하여 선유구곡 아래 신선유구곡이 새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七愚亭의 주인공인 七愚들이 七曲을 새로 지정하여 경영했음이 밝혀졌고 이 仙遊七曲의 각 지점이 석각되어 있음이 고증되었다.

선유구곡을 소재로 하여 구곡시를 지은 이는 畏齋 丁泰鎭(1876-1959)이다. 정태진의 字는 老搜, 號는 西浦 또는 畏齋라 하고 貫鄉은 羅州이다. 李東亭, 郭鍾錫의 門下에서 수학하고 국치 후에는 만주 요동으로 건너가 德興堡에서 개간하여 광복운동을 하였고 기미(1919) 파리 회의 투서사건에 郭俛宇와 연계 서명하여 독립을 청원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달성형무소에 구금되었는데 혹독한 고문에도 굳게 지조를 지켰고 출옥 후에는 문경 초옥관문에 은거하면서 독서로 평생을 마친 분이다.<sup>24)</sup>

그는 선유구곡을 경영하면서 선유구곡시 9수를 지었다.

白石朝暎相映華	흰 돌에 아침 해 비치니 서로 빛이 나고
晶流寒玉紫騰霞	맑은 시내 찬 돌 위로 붉은 안개 오른다
閒尋題字迷難辨	한가로이 글자를 찾으나 알기가 어렵고
只有白雲臺上澗	흰 구름만 누대 위로 저 멀리 자리 한다 (玉霞臺)

以石爲槎喚作靈	돌로 뗏목 삼아 선령을 부르면서
中流停著歲冥冥	아득한 세월 동안 시내 가운데 머무르네
傍崖又有仙人掌	벼랑 곁엔 또한 선인의 자취가 있으니
一路窮源指可聽	한 길로 원두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으리 (靈槎石)

제1곡에서는 하얀 반석 위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옥하대 주변의 정경을 읊고 있다. 옥하대 주위의 신비스런 경관을 묘사하면서 “玉霞臺”란 석각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였다.

23) 문경문화원, 『聞慶의 金石文』 I (향토사료 제17집), 2003.

24) 丁泰鎭, 『畏齋集』, 石印版, 誠庵文庫本(1959), 제13권 行狀 및 附錄 참조.

제2곡에서는 뗏목을 연상하며 신선의 자취와 도를 찾아 나서는 심정을 寓意하였다. 제2곡의 물굽이에 널따란 바위가 뗏목처럼 놓여 있고 물가 벼랑에는 仙人像 바위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무이구곡가의 선령을 찾아나서는 旨趣를 드러내고 있다.

靜處從看動處情	마음으로 정처에서 동처를 보노라면
潭心活活水方清	못 속이 활발하니 못물이 맑아진다
本來淸活休相溷	본디 치솟음과 맑음은 섞일 수 없으니
一理虛明道自生	이치가 허명하면 도는 절로 생긴다네

(活淸臺)

虛明一理本吾心	허명한 이치가 본디 내 마음이거늘
枉被紛囂容染深	부질없이 세상사에 깊이 물들었네
到得茲臺思一洗	이 대에 이르러 한번 씻길 생각하니
肯留滓穢分毫侵	즐겨 묵은 때를 추호라도 두지 않네

(洗心臺)

제3곡에서는 못 속으로 흘러드는 물굽이가 솟구치고 휘감돌아 더욱 청정하게 느껴지므로 부단한 修身으로 도를 이룰 수 있음을 연상하였고 제4곡에서는 말게 흐르는 청정한 반석위의 물을 보고서 맑고 깨끗함이 도의 본질임을 깨닫고 속된 인간사의 해묵은 때를 씻코자 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제3곡은 깨끗한 못 속을 바라보면서 道의 本質을 궁구하고자 뜻을, 제4곡에서는 세상사를 벗어나 도의 본체인 마음을 닦고자 하는 심정을 묘사하였다.

潭上湍流瀉作瀾	못 위는 흐르는 여울물 물결을 만들지만
到來潭處勢全寬	연못에 이르러선 물살이 잔잔하다
觀他有本元如是	이를 보니 근본은 원래 이와 같아
照得吾心一鑑寒	내 마음에 비추어 한 거울 밝히리

(觀瀾臺)



臺前流水絲漪橫 누대 앞에 흐르는 물 일어나는 실물결에  
 一濯長纓萬累輕 한 번 긴 갓끈 씻으니 온갖 근심 가볍다  
 想像損翁當日趣 손옹이 사신 그 때 가진 흥취 상상하니  
 滄浪一曲玩心明 푸른 물결 한 구비에 완심이 밝아진다 (濯清臺)

臨流盡日弄晴暉 물에 임해 온종일 맑은 빛 즐기다가  
 風浴隨時可詠歸 수시로 바람 씻고 읊조리며 돌아온다  
 不必沂雩能撰志 꼭 기우가 아니라도 뜻을 펼 수 있으니  
 巖臺自足振春衣 바위 누대 자족하며 봄옷을 떨치리라 (詠歸巖)

제5곡에서는 석간을 돌면서 일어난 물결이 고요하고 깊은 못물에 이르면 잔잔하게 되는 것에서 도의 본질을 발견하고 淸淨한 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었고 제6곡에서는 맑은 물을 바라보면서 損齋선생의 光明한 뜻<sup>25)</sup>을 따르고자 하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제7곡에서는 浴沂 氣象을 드러낸 曾點의 舞雩臺 故實를 연상하고 豁然 無慾의 삶을 지향코자 하는 뜻을 읊었다.

琮琤石瀨奏笙鸞 돌여울 물소리 난새의 노래 소리  
 縹渺仙踪底處看 저 아래 아득히 신선 자취 보이네  
 從古閩林多怪秘 옛부터 신선이 사는 곳엔 신비롭고 괴이하니  
 雲間鷄犬是劉安 구름 사이 닭과 개는 바로 유안이네 (鸞笙瀨)

全石跨溪鏡面開 시내가 흐르는 전석엔 거울이 열리고  
 凹爲泉瀑峙爲臺 파인 곳은 폭포 되고 언덕은 누대 된다  
 仙人遺寫今何在 선인의 남긴 자취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25) 損齋 南漢朝(1744-1809)는 상주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한번 들으면 모두 외웠고 성품이 소탈, 대범하여 사물에 집착함이 없었다. 李象靖을 찾아가 학문하는 방법을 배운 뒤, 경서 등 여러 서적을 탐독하여 거경궁리에 힘썼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문경 仙遊洞에 은거하여 후진 교육에 힘썼다.(南損齋漢朝嘗築洗心亭於臺之西但有遺址, 畏齋集卷之二)

應有雙鳧葉縣來 섭현에서 날아온 두 마리 오리 있으리 (玉鳥臺)

제 8곡은 속세를 벗어나 神仙의 자취를 추구하고 싶은 심정을, 제 9곡은 仙人들이 닦던 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심정을 읊고 있다. 이 仙遊九曲詩는 본격적인 入道次第를 노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感興存養을 표출한 시라 할 수 있다.

## 2) 雙龍九曲 園林과 雙龍九曲詩

쌍룡구곡은 聞慶市 籠岩面 內西里에 소재하고 있는데 道臧山(828m) 기슭으로 약 4km에 걸쳐 전개되는 구곡이다. 도장산과 불일산의 기암괴석과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어 선경을 빚어내고 있어서 용들이 놀았다고 하여 龍遊洞이라 부르고 깊은 용추에 두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하여 쌍룡구곡이라 한다. 넓고 평평한 암반 위에 용의 무리들이 노닐던 흔적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어 더욱 신비롭고 기이하다.

쌍룡구곡이 시작되는 들머리에 四友亭이 있는데 여흥 민씨 4형제가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정자를 세우고 四友亭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쌍룡계곡 중간쯤에 용유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폭포를 이루어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간다는 용소가 있다. 이 곳에 살던 용왕의 아들이 인근 심원사에 머물던 윤필거사와 의상대사에게 글을 배웠다는 용추와 거대한 반석위에 瓶泉亭이 삼삼히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자는 同春堂 宋浚吉의 玄孫이며 陶庵 李緯의 門人이던 櫟泉 宋明欽(1705-1768)의 선친인 墨翁 宋堯佐가 숙종 29년에 건립하였는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할 때 사도세자의 師傅였던 송명흠이 영조에게 “未聞殺子之惡 殿下何忍殺子乎”라고 직언한 후, 여기서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했다고 한다. 일제 시대에 왜인들이 이 정자를 훼손하여

1958년에 인근 사람들이 역천을 사모하여 중건하였다. 그리고 쌍룡계곡의 인근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深源寺와 圓寂寺가 있고 寒泉의 白鷺, 甄萱의 왕궁터, 城址, 말바위 등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쌍룡구곡의 아홉구비, 즉 一曲 入門, 二曲 志道, 三曲 于淵, 四曲 戾天臺, 五曲 放化洞, 六曲 安道, 七曲 樂耕臺, 八曲 廣明巖, 九曲 紅流洞은 보존 상태가 양호했으며 각 구비의 위치도 고증할 수 있었다.

제1곡은 도장산 계곡에서 흐르는 내서천과 청화산 계곡에서 흐르는 농암천이 만나는 삼각 지점 절승지이다. 이 곳에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된 사우정이 자리 잡고 있다. 제2곡은 지도리 옆의 기암괴석과 그 앞의 넓은 개울로 되어 있다. 여름철 강수량이 많을 때에는 폭포수도 볼 수 있다. 제3곡은 우연(뚝병못)인데 개울이 넓어 못과 같고 주위에 암석들이 삼태기처럼 둘러싸고 있다. 제4곡은 사우정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 길 오른 쪽의 높은 산 윗부분이 흰 암석으로 높이 솟아 있어서 하늘에 이르는 듯하였다. 제5곡은 고요하고 그윽한 방아골의 계곡을, 제6곡은 심원사 계곡과 용유동 계곡이 만나는 삼각지점으로 쌍룡폭포 앞에 우뚝 솟은 안도석이라는 바위 산이 주된 경물이다. 제7곡은 입구에서 약 3Km 떨어진 갈밭골의 농사짓는 정경을 경물로 삼았다. 제8곡 廣明巖은 瓶泉亭 앞의 넓은 반석위로 거울 같은 물이 구비 쳐 흐르는 곳이다. 쌍룡구곡 중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곳 바위에는 '廻瀾石'이라 암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사우정 우측으로 500m 거리에 있는, 내서천가의 평퍼짐한 암석에 지금도 선명히 "廣明巖" "雙溪水石四友山林"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이 제 8곡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한말에 驪興 閔氏 4형제들이 사우정을 세우고 이곳 주위를 逍遙하면서 새긴 글씨인 듯하다. 제 9곡은 문경 농암면과 상주 회북면의 경계에 위치하는 광정으로 농암천의 최상류 구비이다. 쌍룡구곡은 암반과 기암괴석, 울창한 산림, 맑은 물로 이루어

진 절승지로서 전형적인 구곡원림을 이루고 있으나 농암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름으로써 여름에 그늘이 부족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하려면 계곡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쌍룡구곡을 소재로 하여 읊은 雙龍九曲詩는 序詩를 포함하여 1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sup>26)</sup> 이를 번역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幅龍岡四友亭	한 폭의 좋은 언덕에 사우정이 있으니
三山會合兩溪澗	세 산이 모인 곳에 시냇물 끊임없이 흐르네
此地溪山藏九曲	이곳 산천에 구곡이 숨었으니
天教形勝最丁寧	하늘이 가르치는 승지가 분명하네

〈一曲入門〉

一曲來由入道門	첫 굽이 돌아서 도문을 들어가니
兩邊峭壁路中昏	양편의 가파른 낭떠러지라 가는 길 아슬하다
行幸立脚進無已	가다가 쉬건만 나아가길 멈추겠나
次第前頭自有源	차례로 나아가니 저 멀리 원천이 있구나

〈二曲 志道〉

二曲膽然志道石	이곡은 가파른 지도석이니
橫流截立定如	개울물 가로질러 우뚝 선 초석일세
飛淙奔瀑時相過	날으는 물줄기 쏟아지는 폭포도 때로 지나지만
猶不回頭去益白	오히려 돌아보지 아니하니 날이 갈수록 더욱 희네

〈三曲 于淵〉

三曲于淵一鏡磨	삼곡은 둥벙못이 거울과 같고
天然古石自成窩	천연 고석이 자연히 움집을 이루었네
浪息風恬春日暖	물결도 쉬고 바람도 불지 않는 따뜻한 봄
漁群閃忽任委他	물고기 무리지어 한가로이 노는구나

26) 『靑鳥鄉覽』, 籠岩面誌編纂委員會, 1996, 257-259면.

〈四曲 戾天臺〉

四曲戾天千尺臺  
無人會昔到崔嵬  
惟有巢鷺能識性  
長風九萬任飛回

사곡 여천은 천 길의 대로구나  
예부터 준봉 경치 즐기는 이 드물었다  
오직 솔개만이 그 본성을 알고서  
긴 바람 타고 구만리 창공을 날아 도네

〈五曲 放化洞〉

五曲超然放化洞  
拔乎其萃出乎衆  
屈指幾人能到斯  
乾坤叔叔醉長夢

오곡은 초연한 방앗골이요  
그 푸름을 빼려고 여러 사람 나왔네  
손가락을 꼽아도 몇 사람이나 여기 이르렀을까  
천지가 고요하니 긴 꿈에 취하겠네

〈六曲 安道〉

六曲迂然安道石  
中流截特百千尺  
休說而今高莫攀  
由門進道可追跡

육곡은 안빈낙도 그 돌이 여기로다  
중류를 가로막은 백천 척의 돌  
높아서 지금까지 오른 이 없다네  
문에서 나와 길로 나가면 추적하리라

〈七曲 樂耕臺〉

七曲躬耕樂比臺  
柿桑豆菽雨初栽  
鋤罷南山歸臥夕  
兒孫環匣讀書催

칠곡은 갈밭골이로다.  
과일심고 누에치고 첫 비에 농사짓네  
남산 기슭 밭 매고 돌아와 저녁에 누우니  
아이들 둘러 앉아 책읽기를 재촉하네

〈八曲 廣明巖〉

八曲奇巖廣且明  
水澄魚躍兩相情  
風雲漁水誠非偶  
推廣吾明利衆生

팔곡은 기암이 넓고도 밝구나.  
물 맑아 뛰노는 물고기 들어서 정이로다  
바람 구름 물고기는 짝이 될 수 없건만  
넓음 밀어 밝으니 중생을 이롭게 하는구나

## 〈九曲 紅流洞〉

九曲紅流別有洞	구곡인 홍류에는 별천지 마을 있어
桃化春水謝塵閨	복사꽃 봄물에서 세상싸움 사절하네
始焉出岵終知還	아침에 집을 나가 저녁에 돌아올 줄 아니
獸有麒麟鳥有鳳	짐승에도 기린 있고 새에도 봉이 있네

쌍룡구곡시의 序詩에서는 구곡의 지리적 위치와 경치의 빼어남을 찬미하고 제1곡에서는 양편의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계곡의 문이 되듯이 道學의 문이 되는 듯하다고 했으며, 제2곡에서는 계곡에 펼쳐지는 절벽은 선비가 도에 뜻을 둔 듯 변함없다고 하였다. 제3곡은 거울 같은 둠벙못의 고요하고 잔잔한 모습을, 제4곡은 戾天臺 천길 위를 솔개만이 날고 있다고 하여 天地 流行하는 道의 본질을 깨닫고 정진하는 선비의 모습을 읊고 있다. 제5곡은 방앗골의 정기를 체득하기 어렵듯이 학자들이 도학을 깨닫기 어려움을, 제6곡은 중류에 높이 솟은 安道石 같이 安貧樂道하기 어렵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노래하였다. 제7곡은 晝耕夜讀하는 선비의 모습을, 제8곡은 奇巖과 같이 光明히 살고자함을, 제9곡은 끝 구비인 淸정에 別天地가 있음을 상징하고 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구곡시는 그 曲名부터 道學工程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용 또한 경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통하여 學問 求道의 뜻을 펼치고 있다.

## 3) 花枝九曲 園林과 花枝九曲詩

이 화지구곡시(일명 身北九曲詩)는 옥소가 聞慶郡 身北面 花枝洞(현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에서 화지구곡을 경영하면서 직접 지은 구곡시이다. 원래는 시조 형태의 구곡가가 창작되었을 것 같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무이구곡가를 차운한 10수로 된 한문 구곡시만 전할 뿐이다.

옥소는 25세에 初娶 이씨부인이 별세하자 중종의 4대손인 중의대부 대원군 광윤의 따님을 재취로 맞으려고 했으나 親命을 얻지 못하여 副室로 60년을 함께 생활하였다. 이씨부인은 주로 문경 화지동에 살았으므로 옥소는 만년에 청풍과 70여리 떨어진 화지동을 내왕하면서 花枝九曲 園林을 경영하게 되었고 또한 화지구곡시를 지었던 것이다. 화지구곡은 신북천과 草谷川이 합류하여 潁江으로 흘러드는 馬院으로부터 신북천 상류쪽으로 하늘 재라 불리는 大院까지 올라가는 좌우의 절승 9곳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7)</sup>

이 화지구곡시는 옥소가 「花枝九曲記」에서 “옛사람들이 그 곡수를 9로 써 한 것은 取象의 뜻이 있으나 대개 후인들은 다만 흉내 내어 예를 따를 뿐이다”<sup>28)</sup>라고 써 놓은 바와 같이 구곡의 공간을 통하여 주자학의 깨달은 眞理나 求道の 次第를 읊은 것이 아니라 탐승의 흥취를 주로 읊은 것이다.

序詩에서는, 구곡은 맑고 깨끗하며 골마다 빼어난 경치가 펼쳐진다고 하여 서경적 시상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知是斯區有地靈	이 곳에 신령스런 땅 있음을 알겠으니
溪流九曲此澄清	계곡물 아홉 구비 맑고 깨끗하구나
幽深洞裏昭明界	그윽하고 깊은 골엔 뛰어난 경치 펼쳐지고
到處名村自舊聲	이르는 마을마다 옛 명성 그대물세

여기서의 ‘신령스런 땅(地靈)’은 道の 本源도 아니고 신선들의 전설과 설화가 깃든 곳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단지 奇絶한 地境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 ‘舊聲’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명 정도로 이해함이 온당하다고 본다. ‘地靈’과 ‘舊聲’은 武夷權歌의 次韻으로 인한 불가피한 표현이라 볼 수 있

27) 金文基, 『玉所 權變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청봉최태호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28) “古人 以九數其曲 皆有取象之義 而後人則只依倣 而爲例耳.”(『玉所集』 권9, 「花枝九曲記」)

다. 무이도가의 차운시들은 무이도가에 쓰인 운과 同一韻을 취하기 때문에 자칫 유사한 詩想으로 誤認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서시는 고산구곡가의 “어즙어 武夷를 想像호고 學朱子를 호리라”와 황강구곡가의 “아마도 石潭 巴谷을 다시 볼 듯호여라”라는 서시 표현에 비해 훨씬 서경적이다.

제1곡은 馬浦(말개)의 광활한 시내와 馬院 野村의 정경을 노래하였다. 花枝九曲記에는 “마포의 물이 평활하여 배를 띄워도 배가 없는 것 같다” 하고 “官樓에서 내려다보면 栗林과 隱村은 푸른빛이 광야를 에워싸서 맑고 밝아 江湖의 景色과 같다”<sup>29)</sup>고 하였다.

一曲何無泛釣船	일곡에는 어찌 고깃배 띄움이 없는가
中間澄闊似江川	중간은 맑고 넓어 강물과 같네
官居坐倚晨昏閣	官樓에 의지하니 새벽 다리 어둑한데
野色村光靄靄烟	들 색과 마을 빛은 내처럼 아롱지네

마포는 신북천과 초곡천이 합류하여 강과 같은 광활한 시내를 형성한 곳으로 마원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남쪽의 마원 들이 넓고 아득하며 드문드문 엮드린 듯한 촌가의 새벽빛이 맑고 밝게 빛나는 광경을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묘사하고 있다.

제2곡은 主屹山 기슭에 자리잡은 聲校〔鄉校〕의 文風 敎化의 덕을 읊고 있고 제3곡은 廣水院 발이랑에서 호미질하며 기음노래 부르는 농부들의 한가로운 모습을 읊고 있다.

29) “其一曲爲馬浦院者，其水平闊，似泛舟而無舟，雙橋橫架，大道如砥，依官樓而俯視之，栗林隱村，翠炯籠野澄曠，如江湖景色。”(『玉所集』 권9, 「花枝九曲記」).



二曲高臨主屹峯	이곡은 높고 높은 주홀봉에 임했는데
明宮揖遜好儀容	향교에선 공손히 읊하니 좋은 법도라네
元來七事瞻先後	원래 일곱 가지 일 그 선후를 보니
左海文風仰九重	우리나라 문풍이 하늘 높이 우러러 보이네

三曲如浮萬斛船	삼곡은 萬斛 실은 배 떠 있는 것 같은데
村名廣水幾何年	마을 이름 광수는 몇 년이나 됐던고
然疑自古滄桑事	옛날의 창해사가 의심 나지만
葛畝鉏歌又可憐	취 이랑 기음노래 그 또한 어여쁘네

1106m의 높은 주홀봉을 진산으로 하여 자리 잡은 향교에서는 先聖을 받들고 법도를 엄격히 지켜 明倫을 밝히는 곳임을 찬양하고 우리나라 文風이 높고 높음을 자랑하고 있다. 예법과 학문의 중심지인 향교를 제2곡으로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花枝九曲 園林이 풍치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법도 높은 고장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제3곡에서는 廣水院이란 지명이 身北川과 山利川이 합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같은데 옥소는 실제로는 광수원의 시내가 넓지 못해 현실과 다르므로 잠시 滄海之事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내 과거사는 잊고 눈앞에 전개되는 밭 매는 농부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 칩녕쿨 우거진 산골에서 가난하게 밭을 매는 농부들이 가련하다고 하였다. 이 제3곡은 무이구곡가 제3곡의 시상과 매우 흡사하지만 무이구곡가에는 도가적인 전설과 감상성이 짙는데 비해 화지구 곡가에는 현실성이 짙다.

제4곡은 광수원 건너편 古安城(현 고요리)의 평화스런 농촌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四曲川橫臥立巖	사곡에는 시냇물 입암을 둘러있고
亂松覃葛影毵毵	어지러운 소나무 칩녕쿨 그림자 길고 기네

幽村軋軋鳴前確    고요한 마을에는 쿵덕쿵덕 방아소리요  
斷麓蒼蒼照下潭    가파른 푸른 산록 연못 속에 잠기네

古安城(일명 古婁城)은 시냇물이 선바위를 빗겨 흐르고 소나무에 휘감긴 칙닝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는데 고요한 마을에는 푸른 산이 연못에 비치고 靜寂을 깨는 것은 쿵더쿵 방아소리 뿐임을 그리고 있다. 靜中動의 평화로운 정경이다.

제5곡은 옥소가 草廬를 짓고 거처하던 곳이다. 朱子가 무이구곡 중, 제5곡에 자신의 武夷精舍를 건립하고 退溪가 도산구곡 제5곡에 陶山書堂을 지었던 것 같이 옥소도 자신의 거처지를 제5곡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易의 九五 즉, 飛龍在天格인 陽五를 택한 것이니 깊은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花枝谷은 높은 산위의 큰 바위들이 하늘높이 울부짖듯 솟아있으며 마을은 수많은 감나무로 둘러싸여서 가을이 되면 절승을 이루는 무릉도원과 같고 원근의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 온갖 旨趣가 솟아나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한다. 花枝莊圖에 의하면 동쪽에는 雲達山 上峰, 북쪽에는 觀音峰, 서쪽에는 鷲峰, 남쪽에는 長在峰이 솟아있고 四山 안에 6洞이 있으니 제1동은 水洞, 제2동은 險洞, 제3동은 雙溪洞, 제4동은 九玉洞, 제5동은 法山洞, 제6동은 聖主洞인데 성주동 아래가 바로 화지동이다. 당시에는 성주봉 골짜기 쌍계동에 雙溪寺가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서 절을 태우고 스님들은 산 너머 金龍寺로 떠났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주춧돌을 볼 때 당시 쌍계사의 규모는 엄청나게 컸던 것으로 짐작되고 지금도 아주 절경을 이루고 있다.

五曲花枝洞壑深    오곡 화지동 골짜기 깊고 깊으니  
百籬千柿翳如林    울타리 감나무들은 가리어 수풀 같고  
村耕雨露僧鍾月    마을에선 우로에 밭갈고 종들은 달빛에 종치니

不盡斯翁咏讀心    늙은이의 솟는 詩心 다할 길 없네

이러한 절승 속에서 옥소는 도롱이와 샷갓을 쓰고 쟁기질하는 그림 같은 정경과 산사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솟아나는 시심을 이길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폭의 眞景山水畵를 연상케 하고 있다.

六曲孤亭出小灣	육곡엔 외로운 정자 여울 가에 솟아 있고
千峯回複作重關	수많은 산봉우리 겹쳐 두 산문 이루었네
何時施設朝家議	어느 때 나라에서 시설할 의논 베풀어
自在幽人早夕閑	유인이 조석으로 한가롭게 지내리

제6곡 山門溪<sup>30)</sup>는 교묘한 절벽과 층대, 흰 바위가 시냇물과 못으로 더 붙어 장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옥소는 누각을 짓고 석실 내에 廣廬를 만들어 요조한 취미를 맛보았다. 옥소는 溪邊의 亭閣과 石室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읊었다.

七曲松風吼似灘	칠곡엔 송풍이 여울소리 울부짖듯 하는데
誰人來入是中看	어느 누가 찾아와서 이곳을 볼거나
鷄鳴犬吠皆仙境	닭 울음 개 짖는 소리 이 모두 선경인데
白屋簾疎分外寒	억새풀 초가집들 소슬하고 차집기 그지 없네

제7곡은 葛坪里 松林의 풍경과 주위 민가의 소슬한 정경을 읊은 것이다. 갈평은 넓고 평평하여 그 가운데 한줄기의 시내가 흘러가는데 중간쯤 黃腸木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두세 집이 산속에 의지하여 있는 곳이다. 찾아오는 이 없는 산촌은 닭 울음소리와 개짖는 소리만 들릴 뿐, 세상의 시비와

30) 제 6곡인 산문계는 동경 128° 9' 53.47" 북위 36° 45' 53.47" 지점인데 현재 댐 건설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어 있다.

흔타함은 찾아볼 수 없는 仙境으로 묘사하였다.

八曲山門一閉開	팔곡은 산문이 한번 닫혔다 열리니
倒碕殘咽水縈洄	낭떠러지 쇠잔한 물 휘돌아 흐르네
依崖小占懷生計	벼랑 위의 작은 상점은 생계가 처량하고
盡日行人斷去來	하루 종일 행인 끊겨 오가는 이 없구나

제8곡 觀音院은 山門을 한 번 더 지나야 나타나는데 낭떠러지의 쇠잔한 물이 휘돌아 흐르는 곳이다. 이곳은 술을 파는 상점이 몇 집 있고 언덕과 산골짜기 사이에는 神女潭이 있어서 작은 정자를 지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멀고 깊은 산중이기 때문에 행인들이 별로 없어 상점들이 생계 잇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산속의 靜寂함을 강조한 표현인 것 같다.

九曲登高始豁然	구곡 높은 곳에 오르니 눈앞이 확 트이고
不知斯處是窮川	이 곳에서 내가 다하는 줄 알지 못 했네
千山在下千峯立	수많은 산 아래 산봉우리 즐비하니
日月雲烟是別天	해, 달, 구름, 안개 이곳이 바로 별천지라네

마지막 제9곡은 소위 하늘재라고 불리는 大院인데 이 구곡의 꼭대기이다. 이 재를 넘어가면 鳥嶺이 나오고 그 바깥에는 月岳山이 있다. 이 곳은 긴 뿔형 지세로서 여기에 오르면 다시 앞이 활연히 트이어 위로는 하늘의 해와 달과 접하고 아래로는 온갖 산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곳이다. 그래서 해, 달, 구름, 안개를 환히 접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別天地라고 하였다. 옥소는 눈앞이 확 트이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밝고 초탈한 경지, 해·달·구름·안개와 같이 人慾이 개재될 수 없는 순수한 자연의 맑고 깨끗한 淸淨한 경지를 이상향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옥소는 구곡을 승경 위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성교촌, 광수

원, 고안성, 화지동, 갈평, 관음원 등 서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산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주로 묘사하였다. 다만 제2곡에서 향교에 관해 읊다 보니 “우리나라 문풍이 하늘높이 우러러 뵈네.”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학에 뜻을 두거나 드러내려고 했다가보다 향교의 풍속을 찬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외에는 각 구비마다의 주위 경관과 산촌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옥소는 이 구곡가에서 道學의 次第를 읊거나 寓意하지도 않았으며 특이한 意趣도 드러내지 않았다. 빼어난 경관 속의 평화로운 산촌의 모습을 진경산수화를 그리듯 사실적으로 읊고 있을 뿐이다. 특히 ‘澄清’ ‘昭明’(序詩), ‘澄潤’ ‘靄靄’(제1곡), ‘毳毳’ ‘軋軋’ ‘蒼蒼’(제4곡), ‘蕭疎’(제7곡), ‘豁然’(제9곡) 등과 같은 의태어와 의성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은 화지구곡가의 사실적인 표현의 특성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의 특성은 당시 기호 사립들의 천기론적 문학관과 옥소가 교류했던 진경산수화 작가들의 사실적인 표현기법, 여항시인들의 현실주의적 시적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하겠다.<sup>31)</sup>

#### 4) 石門九曲 園林과 石門九曲歌

석문구곡은 聞慶市 산양면과 山北面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하리천과 금천을 따라 약 9Km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태백산의 한 줄기가 번어 나와 金鷄峯을 이루고 맞은편에 石壁이 削立하여 이 두 봉우리가 석문을 이루고 있는데<sup>32)</sup> 이 곳으로부터 대하리천과 금천을 따라 구비마다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석문구곡이다.

31) 金文基, 『玉所 權變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청봉최태호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32) 「石門亭記」, 石門亭歌 참조.

석문정을 경영한 蔡濂(1715-1795)은 字를 季澄, 號를 近品齋라 하는데 1753년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과장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소요하였다. 그는 淸臺 權相一 문하에서 수학하여 高弟가 되었는데 자태가 玉潔 같았고 長者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孝友가 빼어나고 宗族과는 敦睦하며 한번 말한 것은 변개함이 없었으므로 향당이 모두 복종하였다. 만년에는 석문정을 구축하고 산수와 풍월을 벗 삼으며 시가를 소영하면서 存心養性하였다.<sup>33)</sup>

채헌이 경영한 석문구곡 원림의 아홉 구비는 淸臺, 舟巖, 友岩臺, 壁立巖, 九龍板, 盤亭, 廣灘, 鷺川, 石門亭이다.

제1곡인 농청대는 권상일의 藏蓀之處로 산양면 사무소에서 석문정 쪽으로 약 500m쯤 가다보면 금천의 좌측 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전면 3칸, 측면 2칸의 농청대가 세워져 있다. 제2곡은 시내의 좌측에는 舟巖이 서있고 우측에는 浮碧(현 景棣亭이 세워져 있는 바위)이 자리하고 있는 지점이다. 주위에 多義堂 蔡貴河, 仁川君 蔡壽, 拙齋 蔡紹權, 零潭 蔡得沂 등을 봉안했던 熊淵祠, 四益堂 蔡允佐가 제자를 訓學했던 嘉猷書塾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遺址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제3곡 우암대는 주암정에서 200m쯤 떨어진 기암 절벽 아래 있는데 이 대 위에 우암정이 세워져 있다. 정자 우측 석벽에 “友巖蔡公 藏修之所”라는 해서체의 큰 글씨가 석각되어 있다. 제4곡 벽입암은 우암정으로부터 약 700m쯤 떨어진 곳으로 수량이 많은 금천변에 있는데 사람이 접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석벽에 나무들이 드문드문 자라고 있어 거대한 바위가 서 있는 듯하다. 제5곡은 벽입암에서 조금 올라가서 동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구룡관 마을이다. 제6곡은 산북초등학교 뒷산 꼭대기에 솟아 있는 황새바위와 이 맞은편에 보이는 형천리의 盤石

33) 「祭文」, 『仁川蔡氏 族譜』, “石門亭事蹟, 石門亭記, 石門亭日錄, 石門亭尋眞同遊錄” 참조.

亭 주위의 승경이다. 제7곡은 금천과 대하리천이 만나는 넓은 곳으로 밧놀이  
 이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곁에 500년 묶은 벽송의 늘어진  
 가지가 땅에 닿을 듯이 드리워져 의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제8곡 鵝川  
 은 금천에서 대하리천으로 꺾여지는 지점으로 절승지를 이루고 있어 한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제 9곡 석문은 아천으로부터 2Km정도 떨  
 어져 있는데 달만이 넘을 수 있다는 달고개[月峴] 바로 입구에 석문정이  
 자리 잡고 있다. 석문정은 채헌의 아들 蔡蓊玉이 아버지를 위해 세운 정자  
 인데 당시에는 2당 2실로서 세심당과 경의실이라 이름하였다. 이 석문정은  
 불타버리고 그 후 몇 번의 중건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  
 다.<sup>34)</sup> 이 석문 주위에는 月峴, 龜巖, 龍潭, 梨花亭, 月波灘, 蒼崖, 釣臺,  
 雙僧坊, 石砭, 觀瀾臺 등의 石門十二景이 있고 수많은 제영시가 전하고  
 있다.<sup>35)</sup> 채헌은 가사체로 된 석문구곡가를 지었는데 이 외에도 석문정을  
 소재로 하여 시조 8수와 石門亭歌라는 가사 한 편을 더 지었을 뿐만 아니  
 라 朱子의 武夷權歌를 次韻하여 石門九曲詩를 짓기도 하였다. 석문구곡  
 가는 가사체로 되어 있지만 “어위야”라는 감탄사를 曲이 시작 되는 첫머리  
 에 배치하여 어부가체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sup>36)</sup>

이보소 사름드라 내노래 드러보소  
 石門亭下 물근물이 아홉구비 흘러시니  
 일업슨 이내몸이 漁夫노릇 하여보시<sup>37)</sup>

34) 蔡瀨, 「石門亭題詠」, 『石門亭重修記』.

35) 蔡瀨, 「石門亭題詠」(筆寫本)

36) 洪在佺, 「石門亭題詠詩歌攷」, 『효성여대논문집』, 1981.

37)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序詞는 다음과 같다.

“石門亭上養心靈, 亭下寒流九曲清,  
 九曲清中奇妙景, 漁歌唱晚北來聲.”

序詞에서는 석문구곡을 소개하고 假漁翁이 되어 隱逸之士로서 유유자  
적하는 어부적인 삶을 회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위야 一曲水에 一葉船 츄러내여  
桂棹兮 蘭槳으로 泛泛히 周流하니  
權先生 노던고지 景物도 묘홀시고  
巖上의 弄清臺오 岩下에 存道窩라  
庭前의 석근대와 岸上의 늘근솔은  
늘위혀여 푸르렀노  
太古岩 不磨岩은 落霞暮煙 잠겨서라<sup>38)</sup>

제1곡에서는 淸臺 權相一이 은거했던 弄清臺와 그 주위 경물에 대한 정  
취를 읊고 청대선생의 덕을 회억하였다

어위야 興을싸라 二曲으로 올라오니  
東외는 浮碧이오 西회는 舟巖이라  
두되히 마쵸이서 日月捍門 되단말가  
水中의 누은바회 兄弟모양 괴이홀샤  
周濂溪의 사던덴가 염바회 더욱귀타  
赫赫홀샤 熊淵祠의 四先生의 忠節이여  
嘉猷書塾 川上軒의 絃誦聲 들려서라  
孝婦烈女 예우터 잇건마는  
장홀시고 孝烈兼全 申氏旌閭 장홀시고<sup>39)</sup>

제2곡에서는 부벽암과 주암 및 염암의 기묘한 풍치를 읊으면서 주위에

38) “一曲湖洄學海船，淸臺瘦竹映前川。  
先生去後無人弄，太古巖頭鎖暮煙。”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一曲」

39) “二曲東亞日月峯，雙巖枕水兄弟容。  
亭前浮碧千年久，望裡竹林翠幾重。”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二曲」



있는 응연사를 보면서 다의당 채귀하 등 네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가유서숙에서 평생 동안 후학을 가르친 채윤좌를 칭양하였다. 특히 채급지의 아내였던 신씨의 정려각을 대하면서 그 효열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어위야 三曲이여 友岩臺 늙홀시고  
 君子峯 近品山은 前後의 둘러잇고  
 南北의 너른들은 千里에 通豁하니  
 일흠도코 경도흔디 一間茅屋 짓고제고  
 沙場의 섯던花柱 古迹이 되야셔라  
 그건네 마즌짜의 花樹軒 노푼집이  
 야착하고 거룩홀샤 孝友家라 이르더라<sup>40)</sup>

제3곡에서는 우암대 앞쪽에 솟아 있는 근품산과 뒷산 군자봉, 전방에 펼쳐진 넓은 들판으로 어우러진 주변 환경의 수려함을 노래하면서 정자를 짓고자 하는 염원을 토로하였다. 결국 우암정이 우암대 위에 세워져 있어 당시의 詩情을 오늘에 되새기도록 하고 있다. 맞은편 沙場 花柱 고적과 당시 새로 축성된 화수헌의 정경을 읊으면서 효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이야 四曲이여 蒼蒼바회 壁立흔디  
 的的紅花 景이로다  
 千경波 汪汪하니 물김피 어이알이<sup>41)</sup>

어이야 九龍板이 五曲이 되단말가  
 嫋嫋흔 垂楊버들 春風의 춤추는듯  
 嚶嚶한 저시소리 이내벗 부라는듯

40) “三曲灘頭倚暮船，友巖臺古幾千年。  
 亭亭華柱沙頭立，回首濂巖只自解。”「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三曲」

41) “四曲蒼蒼壁立巖，巖苔含露翠苔斑。  
 高堅形體無人識，汪汪後川之滿潭。”「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四曲」

洞天 김푼고터 곳곳마다 경이로다<sup>42)</sup>

제4곡에서는 가파른 바위산에 울긋불긋 핀 꽃들의 아름다움과 넓은 앞내의 넘실거리는 물결에서 느끼는 충만함을 노래하였고, 제5곡에서는 수양버들이 춤추고 새소리 정겨운 구룡판의 春景을 謳歌하였다.

어위야 岫홀시고 六曲潘亭 岫홀시고  
시문사름 어디가고 亭亭一樹 느마이서  
東西南北 가는사름 쉬난정즈 되야는다  
五六月 푸른근를 뉘아니 사랑하리  
琵琶山 놉푼고터 鶯歌聲 閒暇 하니  
아던지 황시바회 依然히 우즐긴 듯<sup>43)</sup>

어위야 七曲廣灘 夕陽天 빗겨셔라  
欸乃曲 한소리에 左右山水 푸러릿네  
맷디를 저어노코 千仞蓬山 도라보니  
白雲深處 잠겨셔라<sup>44)</sup>

어위야 가린쏘 디내야셔 花粧골 바라보고  
獨되로 도라드러 八曲鵝川 드드르니  
白石은 磷磷흔디 泛泛桃花 향기로다<sup>45)</sup>

42) “五曲溪邊路轉深，九龍板下柳成林。  
林間幽趣誰能會，一曲棹歌爽客心。”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五曲」

43) “六曲盤亭一帶灣，白雲深處洞門關。  
琵琶山草綠江花落，黃鳥綿蠻春意閒。”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六曲」

44) “七曲行舟上廣灘，嘉猷書塾更回看。  
却憐夜雨蓬山過，活水源頭添一寒。”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七曲」

45) “八曲鵝川石路開，洗心臺下水縈回。  
渡頭不設桃花網，遊客尋眞逐水來。” 「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八曲」

제6곡에서는 반정과 반정의 정자나무가 드리우는 그들의 쉬윈함, 비슬산에서 지저귀는 피꼬리 노랫소리, 이 소리에 화답하는 듯한 황새바위의 의연한 자태를 노래하였다. 제7곡에서는 廣灘의 넓은 내에서 뱃놀이 즐기면서 천길 높은 蓬山에 白雲이 깊게 잠긴 佳景을 노래하였다. 제8곡은 흰 돌 깔린 냇바닥이 어른거리는 鵝川의 맑은 물에 향기로운 도화가 떠내려가는 桃花園의 정경을 읊고 있다.

어위야 桃花쓰라 가자스라 九曲石門 가즈스라  
 金鷄峯 ㅼ러보니 큰길이 널러서라  
 觀瀾臺 나린물은 晝夜로 洋洋하니  
 亞聖의 하신말씀 ㅼ아니 올토턴야  
 渭川漁父 노던덴가 釣臺도 완연홀샤  
 滿山紅綠 자자논디 光風霽月 그지업다  
 觀魚石 비긴후의 무어시 자미런고  
 김푼뭇 썬고기 靑天의 ㄴ난쇼록  
 任意로 노는양은 自然性 그러커든  
 하물며 사름이야 추ㅼ옴 일홀손가  
 洗心堂 幽寂흔디 石門을 구지듯고  
 風月을 ㅼेत्र슬스마 이ㅼ옴 길러보자 ㅎ노라46)

마지막 제9곡은 위수에서 낚시하던 강태공을 연상하고 석문 12경 가운데 하나인 觀魚臺에서 鳶飛戾天하는 자연의 본성을 발견하고 본연지성을 잃지 말고 도심을 ㄲ졌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石門九曲歌는 石門九曲 園林 각 구비의 絶勝을 노래하면서도 속세를 떠나 한가로운 어부의 삶을 희구하면서 本性을 잃지 않고 도심을 양성하고자 하는 선비의 굳은 지취를 읊고 있다.

46) “九曲石門道豁然，光風霽月滿晴川。

等閑識得尋芳路，飛躍鳶魚摠是天。”「石門九曲次武夷棹歌韻，九曲」

#### 4. 문경지방 九曲詩歌의 景物 認識과 形象化

문경지방의 구곡원림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선유구곡시, 쌍룡구곡시, 화지구곡시와 『석문구곡차무이도가운』은 무이구곡도가의 차운시이고 석문구곡가는 구곡가사이다. 이들 구곡시가는 산수시가의 일종으로서 사림과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구곡시가의 전형에 충실한 작품들이다.

그러면 이들 작품에 나타난 경물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山水詩 및 田園詩에 나타난 자연관, 경물 인식의 방법, 자아와 대상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되어 일찍이 浦渚 趙翼(1579-1655)은 山水詩와 造道詩로<sup>47)</sup>, 李敏弘은 入道次第와 因物起興으로<sup>48)</sup>, 조동일은 경치·흥취·이치로<sup>49)</sup>, 鄭珉은 철학적 관물, 실학적 관물, 미학적 관물로<sup>50)</sup>, 金東俊은 경물을 통해 시적 자아의 경험적 주관을 표출한 누정한시, 경물을 통해 시적 자아의 이념적 주관을 표출한 누정한시, 경물묘사에서 촉발된 흥취를 유로시킨 누정한시로<sup>51)</sup>, 孫五圭는 理念의 表象, 自足の 空間, 唯美的 形象으로<sup>52)</sup>, 정우락은 以物觀物, 觀物察理, 觀物察世로<sup>53)</sup>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山水詩에 있어서 시인이 경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客觀的 認識과 主觀的 認識으로 나눌 수 있고, 주관적 인식은 다시 經驗的 認識과 理念的 認

47) 趙翼, 『浦渚集』 권22, “讀退溪高峯論武夷詩書 武夷權歌十首解”

48)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5, 97-170면.

49) 조동일, 「산수시의 경치, 흥취, 주제」,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인식』, 문예출판사, 1993, 130면.

50) 鄭珉, 「觀物精神의 美學 意義」, 『한국학논집』,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5.

51) 金東俊, 「16세기 樓亭漢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52) 孫五圭, 「朝鮮朝 士大夫詩歌의 自然認識」,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53) 정우락,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 34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방법은 시적 자아가 인식 대상인 경물을 객관화 하여 경물로부터 촉발된 감흥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물기흥적인 시, 흥취를 드러내는 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산수시가 이에 속한다. 경험적 인식 방법은 시적자아가 대상인 경물을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갈등과 상상을 드러냄으로써 비판적인 시, 초월적인 시를 낳게 되는데 抵抗詩人 및 方外人들의 산수시가 대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념적 인식 방법은 시적 자아가 대상인 경물을 이념의 프리즘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입도차제적인 시, 이치를 드러내는 시가 되는데 성리학적 이념이 투철한 도학파들의 시가 대부분 이에 속한다. 이 때 시·공간을 통한 경물 인식은 이념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곡시가의 경우, 경물 인식의 방법은 객관적 인식과 이념적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문경지방의 구곡시가 중에서 선유구곡시와 쌍룡구곡시, 석문구곡가의 경물 인식은 이념적 인식 방법을, 화지구곡시의 경물 인식은 객관적 인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靜處從看動處情	마음으로 정처에서 동처를 보노라면
潭心活活水方清	못 속이 활발하니 못물이 맑아진다
本來淸活休相溷	본디 치솟음과 맑음은 섞일 수 없으니
一理虛明道自生	이치가 허명하면 도는 절로 생긴다네

虛明一理本吾心	허명한 이치가 본디 내 마음이거늘.
枉被紛囂容染深	부질없이 세상사에 깊이 물들었네
到得茲臺思一洗	이 대에 이르러 한번 씻길 생각하니
肯留滓穢分毫侵	즐거 묵은 때를 추호라도 두지 않네

앞의 시는 선유구곡 제3곡시이고 뒤의 시는 제4곡시이다. ‘숫구치는 물’

‘活水’에서 俗氣를 벗어나는 자연 현상을 보고 ‘맑은 물’에서 淸淨한 道體, 本性을 발견하였다. 活水와 淨水, 혼탁한 人心과 虛靈不昧한 道心은 혼잡될 수 없고 虛明한 道는 저절로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俗世에서 마음공부를 게을리 함을 반성하고 洗心하여 人慾을 벗고자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유구곡시는 곡의 명칭에도 주자학적 이념이 드러나지만 전편에 걸쳐 경물 인식이 이념적인 주관적 인식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쌍룡구곡시의 경물 인식도 선유구곡시와 유사하다.

二曲膽然志道石	이곡은 가파른 지도석이니
橫流截立定如石	개울물 가로질러 우뚝 선 초석일세
飛淙奔瀑時相過	날으는 물줄기 쏟아지는 폭포도 때로 지나지만
猶不回頭去益白	오히려 돌아보지 아니하니 날이 갈수록 더욱 희네
四曲戾天千尺臺	사곡 여천은 천 길의 대로구나
無人會昔到崔嵬	예부터 준봉 경치 즐기는 이 드물었다
惟有巢鳶能識性	오직 솔개만이 그 본성을 알고서
長風九萬任飛回	긴 바람 타고 구만리 창공을 날아 도네

위의 쌍룡구곡 제2곡시에서는 개울물을 수시로 변하는 경물 즉 인욕의 세계로 보고 개울가에 높이 치솟은 흰 바위산인 志道石을 청정한 도심, 항상성을 지닌 도체로 인식하여 ‘나는 물줄기’와 ‘폭포수’도 때로 지나지만 결눈질 하지 않고 허령한 도심과 같이 변함없이 맑고 깨끗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4곡에서는, 여천대는 천 길이나 높기 때문에 속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청정한 곳으로 보고 하늘을 나는 본성을 지닌 솔개만이 경물과 조화롭게 창공을 휘돈다고 인식하였다. 선유구곡시보다는 객관적인 경물 묘사가 다소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주관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觀魚石 비긴후의 무어시 자미런고  
 김푼뭇 썬고기 青天의 느난쇼록  
 任意로 노논양은 自然性 그러커든  
 하물며 사툼이야 추막음 일홀손가  
 洗心堂 幽寂흔디 石門을 구지똥고  
 風月을 벗줄스마 이막음 길리보자 흐노라

위의 석문구곡가 제9곡에서는 觀魚石이라는 경물을 보고 고기는 연못에서 놀고 슬개는 하늘에서 나는, 만물이 流行하는 원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고 人慾을 닦는 洗心堂이 幽寂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石門을 굳게 닫고 存心養性하고자 하는 성리학자 다운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화지구곡시에서는 경물 인식이 객관화 되어 촉발된 감흥을 묘사함으로써 시적 자아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실적인 묘사와 객관적인 서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一曲何無泛釣船	일곡에는 어찌 고깃배 띄움에 없는가
中間澄闊似江川	중간은 맑고 넓어 강물과 같네
官居坐倚晨昏閣	官樓에 의지하니 새벽 다리 어둑한데
野色村光靄靄烟	들 색과 마을 빛은 내처럼 아롱지네

四曲川橫臥立巖	사곡에는 시냇물 입암을 둘러있고
亂松覃葛影毵毵	어지러운 소나무 칙닝쿨 그림자 길고 기네
幽村軋軋鳴前確	고요한 마을에는 쿵덕쿵덕 방아소리요
斷麓蒼蒼照下潭	가파른 푸른 산록 연못 속에 잠기네

위의 화지구곡 제1곡시에서는 고깃배를 충분히 띄울 수 있는 맑고 넓은

공간과 관루에서 바라다 보이는 새벽의 들 색과 마을 빛이 안개로 아롱져 조화로운 정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서정적 자아의 만족스런 새벽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제4곡에서는 입암을 둘러 흐르는 시냇물의 유유함, 소나무를 뒤덮고 있는 칙녕쿨의 짙은 그림자가 한가로움을 불러 일으키고, 높은 산 그림자가 연못에 잠기는 지극히 고요한 세계에 쿵더쿵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린다고 묘사함으로써 풍요로움을 한층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1곡과 제4곡의 경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서정적 자아는 憂愁나 갈등도 없이 오직 한가롭고 만족스런 정취를 만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지구곡시의 여타 곡에서도 대체로 경물의 객관적 묘사를 통해 자아의 흥취를 표출하고 있으나 다만, 제3곡시에서 “葛畝鉏歌又可憐(취 이랑 기음노래 그 또한 어여쁘네)”라 하고 제8곡시에서 “依崖小占懷生計(벼랑 위의 작은 상점은 생계가 처량하고)”라 하여 경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문경지방 구곡시의 시적 형상화의 방법은 어떠할까?

우선 이념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선유구곡시, 쌍룡구곡시, 석문구곡가의 시적 형상화 방법을 살펴보면, 이들 시가에 두드러진 특징은 맑고 밝으며 고요하고 삼상한 이미지로 청정한 도심을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유구곡시에서는 주로 淸, 虛明, 寒, 濯, 明, 風浴, 沂霽, 琮瑤, 鏡, 晴, 쌍룡구곡시에서는 白, 閃, 超然, 寂寂, 曠, 明, 澄, 水, 석문구곡가에서는 ‘말근’ 淸, 濂溪, 通豁, 蒼蒼, 汪汪, ‘푸른’, 白, 光風霽月, 嚶嚶, 幽寂과 같은 이미지어를 사용하여 맑고 맑고 삼상하고 활기찬 경물묘사를 함으로써 허령불매한 도심과 천지만물의 자연스런 流行의 이치를 구현코자 하였다.

경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花枝九曲詩의 경우는 맑고 깨끗하며 고요하고 한가로운 이미지의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적인 묘사의 방법을 통하여 자아의 흥취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시에 쓰인 澄清, 澄闊, 蒼蒼, 白, 寒, 豁然 등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閑, 深, 幽,



孤, 簫疎 등은 고요하고 한가로운 이미지로 자아의 明澄한 흥취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澄清, 昭明, 澄瀾, 靄靄, 粼粼, 軋軋, 蒼蒼, 簫疎, 縈洄, 濶然 등의 사실적인 묘사는 산수의 아름다운 경물에 촉발된 자아의 감흥을 적절히 표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5. 결 론

이상에서 문경지방의 구곡원림에 대한 문헌 및 현지답사를 통한 고증과 구곡시가의 문학적 특징, 구곡시가의 경물 인식과 형상화 방법에 관해 고구하였다.

문경지방에는 선유구곡, 쌍룡구곡, 화지구곡, 석문구곡 등 유명 구곡원림이 4개나 존재하는데 선유구곡 원림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각 곡의 지점도 비교적 고증이 용이했으나 쌍룡구곡과 석문구곡 원림은 고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화지구곡 원림은 저수지 축조 공사로 훼손이 심각하였다.

선유구곡 원림은 둔덕산 계곡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데 제1곡 옥하대로부터 제9곡 옥석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평평한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거대한 석조를 연상케 하며 맑은 물과 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다행히 제2곡부터 제9곡까지 각 지점에 九曲名이 石刻되어 선명히 남아 있으나 제1곡만은 홍수로 유실되어 지점이 불분명했으므로 금번 학술조사를 통하여 고증하였다. 조선조 말엽에 七愚가 선유구곡 하류에 仙遊七曲을 지정하여 경영하였고 지금도 각 지점이 석각되어 전한다. 선유구곡시로는 丁泰鎭이 지은 內仙遊九曲詩가 外仙遊九景詩와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 내선유구곡시는 본격적인 입도차제를 노래했다기보다는 각 곡의 경물을 통하여 성리학적 이념을 표출한 感興存養의 시라고 볼 수 있다.

쌍룡구곡 원림은 도장산 기슭 약 4Km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데 제1곡 입문으로부터 제9곡 홍유동까지 기암절벽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어 절승을 이루고 있다. 쌍룡구곡시는 선유구곡시보다는 흥취를 많이 표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경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통한 도학적인 삶을 드러내었다.

화지구곡 원림은 제1곡 馬浦(말개)로부터 하늘재라고 부르는 제9곡 大院까지 약 16Km에 걸쳐 전개되는데 제6곡 산문개는 저수지 공사로 훼손되었고 제4곡 고루성과 제8곡 관음원이 금번 조사에서 새로 고증되었다. 권섭이 지은 화지구곡시는 경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통하여 흥취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기호 사립파의 천기론적 문학과 옥소가 교유했던 진경산수화 작가들의 사실적인 표현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호학과 구곡시의 시적 경향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다.

석문구곡 원림은 제1곡 농청대로부터 제9곡 석문정까지 약 9Km에 걸쳐 전개되는데 채헌이 직접 경영하던 원림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전하고 있으나 제5곡과 제6곡의 지점을 고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석무구곡가는 가사체로 되어 있고 석문정구곡시는 무이구곡가의 차운시인데 속세를 떠나 假漁翁의 삶을 살면서 道心을 닦고자하는 지취를 표출하고 있다.

산수시의 경물 인식 방법을 客觀的 認識, 經驗的 認識, 理念的 認識으로 나누어 볼 때, 구곡시의 경물 인식 방법은 객관적 인식과 이념적 인식으로 드러났다. 문경지방의 구곡시가 중에서 선유구곡시와 쌍룡구곡시, 석문구곡가의 경물 인식은 이념적 인식 방법을, 화지구곡시의 경물 인식은 객관적 인식 방법을 취하였다.

문경지방 구곡시의 시적 형상화는 주로 이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념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선유구곡시, 쌍룡구곡시, 석문구곡가의 경우는 맑고 밝고 고요하고 삼상한 이미지로 청정한 도심을 형상화 하고 있었

으며 경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화지구곡시의 경우는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한가로운 이미지의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적인 묘사의 방법을 통하여 구곡 경물에 대한 자아의 흥취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경지방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는 그 경관의 빼어남과 시가의 문학적 의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4개소의 구곡원림을 관광 명소화 하여 문경의 자연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면 지방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 자료

- 店村市·聞慶郡, 『聞慶誌』, 1994.  
聞慶文化院, 「聞慶의 金石文 I」, 『鄉土史料』 제17집, 2003.  
籠巖面誌編纂委員會, 『靑鳥鄉覽(籠巖面誌)』, 1996.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珣, 『栗谷全書』(『韓國文集叢刊』 44-45), 民族文化推進會, 1988.  
宋時烈, 『宋子大全』, 斯文學會, 1971.  
趙翼, 『浦渚集』(『韓國文集叢刊』 85), 民族文化推進會, 1988.  
權燮, 『玉所稿』, 筆寫本, 花枝本.  
權燮, 『玉所文集』, 石印版, 永遂庵本.  
蔡憲, 『近品齋詩稿』, 石門亭尋眞同遊, 石門亭日錄, 筆寫本.  
丁泰鎮, 『畏齋集』, 誠庵文庫本.  
朴河淡, 『逍遙堂逸稿』, 慶北大 圖書館本.

### ■ 저서 및 논문

- 姜銓燮, 「石門亭九曲棹歌의 樣式史的 考察」, 『어문연구』 29, 1997.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金東俊, 「16세기 樓亭漢詩 研究」,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학회, 1991.  
\_\_\_\_\_, 「玉所 權燮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晴峯崔台鎬博士華甲紀念論叢』, 2000.

-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1.
- 金炳國, 「高山九曲歌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金善祺, 「九曲歌系 詩歌의 展開와 〈高山九曲歌〉의 位相」, 『송자학논총』 6, 2000.
- 金昌沅, 「壺中天地의 原林美學과 〈陶山十二曲〉의 江湖」,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 金興圭, 『朝鮮後期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朴魯春, 「高山九曲詩의 漢譯詩와 高山九曲潭記」, 『시조문학』 1, 1960.
- 朴堯順, 「玉所權變의 詩歌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6.
-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출판부, 2000.
- 안장리, 「韓國 八景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 『고고미술』 151호, 한국미술사학회, 1981.
- \_\_\_\_\_, 「조형예술과 성리학」, 『도원 유승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3.
- 尹軫暎, 「朝鮮時代 九曲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97.
-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5.
-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 李佑成, 「高麗末 李朝初의 漁父歌」, 『성대논문집』 9, 1964.
- 李殷昌, 「韓國儒家傳統園林의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8.
- 李昌教, 『閔慶의 樓·臺·亭·齋』, 문경문화원, 2000.
- 李泰鎭, 「16世紀 士林의 歷史的 性格」, 『대동문화연구』 13, 1978.
- 鄭羽洛,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3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 鄭雲采, 「瀟湘八景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景의 성격」, 『국어교육』 79·8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2.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9.

崔珍源, 『韓國古典文學의 形象性』, 성균관대출판부, 1988.

洪在然, 「石門亭題詠詩歌攷」, 『논문집』 23, 효성여대,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Gu-gok Garden(九曲園林) and Gu-gok  
Poetries(九曲詩歌) in Munkyeong Province

Kim, Mun-Kie / An, Tae-Hyun

There are four famous Gu-Gok Gardens(九曲園林) in Munkyeong province. The followings are Seonyou-Gugok, Ssangyong-Gugok, Hawji-Gugok, Seokmun-Gugok.

The garden of Seonyou-Gugok is well preserved. The points of each valley were also relatively easy for us to research. Contrary to this, Hawji-Gugok were damaged seriously by a reservoir construction. I had to have also lots of difficultie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in Ssangyong-Gugok and Seokmun-Gugok

The garden of Seonyou-Gugok has had fortunately the name of Gu-gok with carving them clearly from second valley(二曲) to ninth valley(九曲). I researched first valley(一曲) this time. The point of first valley(一曲) was ambiguous in that it was washed away by the flood. Seonyou-Gugok poetry, written by Jeong Tae-jin, expressed the Doctrines of Chu-tza getting through of the scenery of each valley.

The garden of Ssangyong-Gugok extends around four kilometers from the foot of Dojang Mountain. We can see that fantastic rocks and stones are harmonizing with clear water from the entrance of first valley(一曲) to Hongyoudong of ninth valley(九曲)

Ssangyong-Gugok poetry expresses more amusements than what Seonyou-Gugok poetry does. But as a whole, the former, Ssangyong-Gugok poetry, reveals moral philosophic living through the ideological recognition on the scenery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Seonyou-Gugok poetry.

The sixth valley of Hawji-Gugok, so-called 'Sanmungae', was damaged by a reservoir construction. The fourth valley, Goruseong and the eighth one, Gawneumwon were researched newly in this research. Hawji-Gugok poetry, written by Gweon Seop, expresses amusements realistically through the objective recognition of each valley. This means Hawji-Gugok poetry legitimately succeeded to the tendency of Gugok poetry of Gi-ho(畿湖) doctrinal faction.

The garden of Seokmun-Gugok has relatively preserved very well. On the other hand, I had lots of troubles with researching the point of the sixth valley called the 'Banjeong'. Seokmunjeong-Gugok song is written in Ga-sa(歌辭). It represents the significance and delight(志趣) that a poet-tries to train the moral mind(道心) with living as a supermundane fake fisherman(假漁翁).

Of the four Gu-gok poetries in Munkyeong province, Seonyou-Gugok poetry, Ssangyong-Gugok poetry and Seokmun-Gugok song choose the method of the ideological recognition on the scenery. Hawji-Gugok poetry chooses the method of objective recognition. All of four poetries obtain the poetic configuration with an image. Seonyou-Gugok poetry, Ssangyong-Gugok poetry, Seokmun-Gugok poetry make all the configuration of the clear moral mind(道心) with a clear, bright, calm and crisp image. On the one hand, Hawji-Gugok poetry use the poetic dictions that reveals a clear, pure, calm, free image. It also expressed the amusements of self on the scenery of Gu-gok effectively through the method of realistic description.

#### **Key Word**

Gu-gok poetry, Gu-gok song, Mue-do-ga, Garden of Gu-gok, Seonyou-Gugok, Ssangyong-Gugok, Hawji-Gugok, Seokmun-Gugok. Recognition of the Scenery, Objective Recognition, Empirical Recognition, Ideological Recognition